

93.2.26

일년에 한번 간담회 통해 건의사항 전달, 업무조건 개선

올해는 환경캠페인 벌이기로

6백24명 회원.
연 예산 2천만원

현대자동차의 '아카시아'는 잘 알려진 여직원회다. 워낙 유명한 회사 탓도 있겠지만 '아카시아'라는 예쁜 이름덕도 크다. '아름다운 아가씨...'로 시작되는 광고 CM송을 빌리 않더라도 이름에서 그들의 향내가 물씬 배어난다.

80년 회사 씨클로 정식 등록, 6백24명의 회원으로 뭉친 '아카시아'는 매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예산은 '아카시아'가 초창기부터 해오고 있는 상계동 '양지보육원'과 정릉 '안나의 집'에 매달 30만원의 기부금 보내기, 꽃꽂이, 서예반 등의 교양강

좌 개설 같은 정기적인 지출에 쓰인다.

해마다 새롭게 부상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도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지난해에는 회사내에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을 벌여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만들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는 같은 취지로 '환경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휴지 버리지 않기'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합성세제 안 쓰기', '자가용 덜 타기'까지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사원들에게 홍보하려고 한다.

'아카시아'에서는 또 일년에 한번 여직원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연다. 여직원들의

고민이나 불만들이 간담회를 통해 응집되고 회사에 전달되는 것이다. 남자직원들의 언어폭력(반말, 욕설) 근절, 여직원의 부서 로케이션 활성화, 남자직원들과의 청소 분담 등이 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제의됐고 그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과제는 대졸·고졸간 갈등 해소

올해에도 여직원회에 기혼여성들을 위한 임신복 지급, 승진제도 보완과 정착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오는 4월 있을 간담회까지 더 많은 건의 사항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 안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 대졸과 고졸 사원간의 갈등이 문제점이긴 하지만 '아카시아'의 93년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사진은 92년 10월 체육대회에서.

대졸과 고졸여직원들의 갈등을 해소다. '아카시아'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모든 여직원이 자동입회 하게 되어 있지만 지난해 대졸여직원들이 여직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면서부터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카시아회'의 유미숙(27.외자부) 회장은 "고졸사원의 경우 고유업무외에 차대접, 청소 심지어 상사 집안의 세금 납부 같은 개인적인 심부름까지도 하게된다. 대졸사원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일이 돌아가더라도 당당하게 거절한다. 그러니 같은 사무실에 대졸사원과 고졸사원이 같이 있으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여직원회

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졸여직원은 20여명 정도다. 유미숙 회장은 "'아카시아'내에서 해결해보려고 몇번 대화를 시도해 본 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와 구조적인 불평등의 벽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졸사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개입으로 서로간의 불만이 적정선에서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힌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여성 고민 나뉘기질 터

새해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거세게 불고 있는 '감원바람'도 '아카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직원 중에

고참, 기혼자,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 등 상사 눈밖에 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불안해 한다. 지난 1월 이미 한차례 감원 소동이 있었지만 2차 감원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여직원뿐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것.

유미숙 회장에 의하면 그런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의 93년은 희망적이다. "이제까지 우리회사 여직원들의 권익보호에만 급급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올해부터는 여성단체나 타회사 여직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직장여성의 고민을 나뉘 갖는 '아카시아'가 될 예정이다."

(황금희 기자)